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7년 12월 1일(금) (음력 10월 14일) Пятница 1 декабря 2017 г. № 46(11676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11월 25일 오후 3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제10회 사할린 한민족 청소년 노래자랑 대회가 펼쳐졌다. (관련 기사 2면) (이예식기자 촬영)

단신

12월 1일 코르사코브 사할린희생동포기념 위령조각탑 제막 10주년 행사 개최

올해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서 사할린희생동포기념위령조각탑을 제막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 위령탑은 우리말TV방송국, 대우건설, 코르사코브한인회 등의 협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금으로 한국단체인 한강포럼이 주관해 건립했다.

12월 1일(금) 오전 11시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서 사할린희생동포기념위령탑 제막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한강포럼 대표단과 사할린 한인 대표 등이 참가한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한강포럼 대표단이 사할린동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우리말방송국은 전했다.

사할린주정부 행정실장으로 안톤 월로쉬코 임명

사할린주정부 제1부지사이며 행정실장인 알렉산드르 제르노위치가 사임하고 행정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던 안톤 월로쉬코가 새 행정실장으로 임명되어 12월 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현재 제1부지사는 공석이다.

사할린주, 연송어기 마감

사할린주에서 11월 30일 공식적으로 연송어 잡이가 끝났다.

마지막으로 이투르프섬에서 <쿠릴스키 리바크(쿠릴 어부)>회사가 연어를 어획했다.

사할린주어업관리국 정보에 따르면 성어기 2017 기간에는 연송어 4만9600톤을 획득했다. 그중에는 송어는 2만7500톤, 연어는 2만여 톤, 네르카는 1500여 톤과 키주츠는 506톤이다.

사할린주, <스톱 에이즈>전국행사에 참여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증가 추세인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HIV)의 전 세계적 확산의 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한 행사가 매년 12월 1일에 진행되고 있다.

올해 제4회 <스톱 에이즈>행사가 러시아연방보건부의 주최로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러시아에서는 90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시간당 10명이 감염되고 있는 실태다.

사할린주도 전국적 행사에 적극적으로 연합 활동을 펼친다.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공식적으로 에이즈와의 투쟁을 상징하는 빨간 리본 배포가 시작되었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에이즈를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앙케트 조사가 진행되었다.

사할린주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고등교육시설과 일반 전문교육기관, 학교 등에서 에이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보건전문가들과 주제 영상활동가들이 함께하는 훈련, 퀴즈, 상담 등이 이뤄진다.

사할린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의 좋은 결과로 의료기관에 에이즈 무료검진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사할린주보건부 박 알렉세이 장관이 지적했다. 현재 사할린 전 지역에서 에이즈 무료검진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출장소, 1세대동포에게 새해 선물 전달

주사할린대한민국영사출장소(소장 황명희)가 1세대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새해 선물 전달을 시작했다. 출장소는 예년에도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별로 쌀, 사과 등을 선물했지만, 올해는 특별히 개별적으로 나누어드릴 수 있는 생필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은 1세대 동포가 가장 많은(240여 명)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경우 주한인회와 시한인회가 분담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은 각 지방 한인회장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북서부지역 일부(샤흐초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토마리)는 앞서 동포간담회 차 출장소장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

박순옥 한인회장은 "출장소에서 이렇게 1세대 동포 개개인에게 새해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은 처음이라, 어르신들이 정말 반가워하신다"면서, 선물을 전달 받은 한 1세대 어르신은 출장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영주귀국자 중 최근 사할린으로 역귀국하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행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인회에 꼭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사할린주한인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1세대 동포(1945.8.15이전 사할린 거주자)는 약 580여 명이나, 등록되지 않은 어르신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자·역귀국자·사망자 등의 정보는 주한인협회(4242-42-40-87)에 통보 가능하다.

(본사기자)

사할린 원주민, 총회 소집

11월 30일 - 12월 1일 이틀간 노글리키에서 제8차 사할린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회의가 소집된다. 사실 이번 제8차 원주민 회의 소집 문제와 관련하여 대표자 선출 문제와 회의 날짜 결정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포럼 대표로 선출된 원주민 대다수가 회의 날짜를 결정하게 되었다.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내 구역마다 회의가 소집되었고 이에 대한 결정서를 포럼 조직위원회에 보냈다.

그러나 원주민북방소수민족대표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10월 말로 임기가 끝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표위원회의 사업보고, 주두마 원주민대표 보고를 듣고 새로 대표위원회 위원들과 사할린주주마 내 원주민대표를 선출해야 하고 앞으로의 활동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의 앞두고 원주민북방소수민족대표위원회 위원장인 표도르 미군의 위원회 임기가 끝났으므로 자신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보고를 안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지역역사 학술대회 개최

12월 7-8일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주관으로 <첫 지역역사 읽기> 학술회가 개최된다. 이틀간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블라고웨센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주 내 지방자치체 학술기관 연구가 40여 명이 지역역사, 사할린과 연해주 민족들의 고고학·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사할린주 자연연구, 박물관 활동의 새로운 기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학술회는 12월 7일 9시30분 사할린과학기술센터 강당(콤무니스찌체스키 프로스펙트 31)에서 개최된다.

앞으로 학술회는 2년에 한 번 12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전했다.

	<h2 style="margin: 0;">2018년 신문주문</h2>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본사 편집부)</p>		

사할린주 한인회 25주년 기념 제10회 사할린 한민족 청소년 노래자랑 사할린의 한민족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끼와 재능이 발산된 무대

11월 25일 오후 3시에 유즈노사할린스 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제10회 사할린한민족청소년 노래자랑대회가 펼쳐졌다. 사할린주한인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한국 여성가족부와 사할린주한인회, 아시아항공 사할린지점의 후원과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의 주최로 대회가 개최되었다. 공연에 앞서 25주년을 맞은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에게 감사장 및 기념품 전달과 축하 인사가 있었다.

사할린주정부 행정실 이성철 부실장은 "그동안 사할린주한인회는 한인사회의 화합을 주도해오며 축제와 행사를 이끌고 조상의 언어와 문화를 계승하는 데 힘써 왔다. 이곳 러시아 사할린에서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치하하며 25주년을 맞은 주한인회에 축하한다."고 주지사의 축사와 함께 감사장을 전달했다.

주블라디보스톡 한국 총영사관 사할린출장소 황명희 소장은 "사할린주한인회가 지역사회와 한인사회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전수하고 계승해 나가도록 여러 방면에서 기여를 해왔다. 앞으로 주한인회를 중심으로 한러관계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축제를 통해 발전이 촉진되길 기원한다. 대회에 모든 참가자들의 건승을 빈다."며 축하했다.

이외에도 사할린주 두마 안드레이 하포츠킨 의장과 나드사진 시장의 축사가 전달되었고, 사할린주사회원 블라지미르 이폴니코프 회장, 러시아 민족악사블레야(연합회) 사할린지부 사르키스 아코판 지부장이 축사를 했다.

이에 화답하여 사할린주 한인회 박순옥 회장은 "기념할 만한 제 10회 한민족 청소년 노래자랑 개최가 더욱 특별한 것은 사할린주한인회가 2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말 방송국의 주최로 축제를 열게 된 것이다. 사할린주 한인회는 지금까지 1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써 왔다. 이 후로는 잘 양성된 차세대와 차세대의 지도자들이 주역이 되어 주한인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1세대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청년세대들에게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계승해 나가도록 힘쓸 계획이다. 축제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관객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답사를 했다.

우리말 방송국의 김춘자 국장은 "10회를 맞는 한민족 노래자랑은 아름다운 멜로디에 한국어로 노래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해왔다. 이 축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모든 참가자들의 건승을 빈다."고 축하했다.

이날 콩쿠르는 <에트노스>아동예술 학교의 은명춘·신 율라·강 안나 교사들이 심사했다.

경연은 7세-17세의 유·청소년팀과 18세-35세의 청년팀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참가팀은 총 15팀으로 축제는 <하늘> 팀의 신명나는 난타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6세와 7세 유아들의 듀엣으로 부른 '내동생' 노래는 귀여움을 더했고, 김 이고리는 한때 드라마 한류를 이끌었던 '꽃보다 남자'의 삽입곡 '내 머리가 나빠서'를 불렀다.

듀엣팀인 마라쿠릴라 타치아나와 사이 물리나 발레리아는(홍스크) '마지막처럼'을 부르며 댄스와 노래를 곁들였다. 코르사코브에서 온 듀엣팀은 '가지마'를 불러 조화롭고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였고 가야금 연주와 함께 리운순, 이 에카체리



나는 듀엣으로 '밀양 아리랑'을 경쾌하게 불렀다. 김 아나스타시아(마카로브)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로 모두에게 익숙한 '백만 송이 장미'를 불렀다. 페트로바 발레리아의 '메이비(maybe)', 에트노스예술학교 학생들 트리오의 춤과 노래가 조화를 이룬 '어게인(again)', 김 비아나(크라스노고르스크)의 '내 나이가 어때서'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로 경연이 펼쳐졌다.

찬조 출연으로 리 올가는 가창력과 성량이 풍부한 목소리로 '얼음꽃'을, 김경호는 '잘났어. 정말'을 불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경연에 출전한 노래들 중 흥을 돋운 노래는 단연 트로트 풍의 노래였다. 어떤 장르의 노래가, 어떤 참가자가 상을 탈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관객석은 만석이 아니었으나 어린 청소년들의 노래에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시상은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7-17세의 청소년부에서 1위는 '마이 스타(my star)'를 부른 하미연 양이 차지, 2위는 '시작한 사랑'을 부른 발레리아 페트로바, 3위는 춤과 노래를 조화롭게 곁들여 '어게인(again)'을 부른 트리오로 구성된 이 베로니카, 권 아나스타시아, 김 이고리가 차지했다.



성인부에서 1위는 '가지마'를 부른 코르사코브의 듀엣팀 표도르 포루치코브와 알레리아 페트로와, 2위는 '컴백홈(come back home)'을 부른 타치아나 소콜로와, 3위는 '아틀란티스의 소녀'를 부른 민정빈이 선정되어 모두에게 상장과 기념품을 수여했고 인기상으로는 '정,정,정'을 흥겹게 부른 홍스크에서 온 김 드미트리 군이 선정되었다. 대상으로는 두 팀이 선정되었다. 대상의 상품으로는 아시아나 항공 유즈노사할린스-인천 왕복 항공권이 주어졌다. 가야금 연주와 함께 듀엣으로 '밀양 아리랑'을 부른 리운순과 이 에카체리나, '무조건'을 흥겹게 부른 우 미하일이 대상을 받았다.

시상 후 김춘자 우리말 방송국 국장은 축제의 후원자들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노래자랑의 축제가 무르익어 앞으로는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좀더 뜨겁고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취재: 글/박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건강장애아들을 향토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통합의 날에 초대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은 12월 2일 <모두를 위한 박물관! 통합의 날> 전국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행사는 <통합 박물관>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 기획의 주요 임무는 박물관의 시설들을 통해 장애아들의 사회화의 실제경험과 창조적인 재활 활동을 향상시키며 박물관에서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행사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문화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사회적 관심들을 끄는 데 있다. 이날 박물관에서는 장애아, 정서장애아, 이들의 가족과 여기에 관심있는 참가자들을 위한 통합행사가 펼쳐진다.

12시와 16시에는 <옛날에 사할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란 견학이 있고 행사 시 참가자들은 넵흐인들의 옷도 입을 수 있다.

14시와 18시에는 <섬지역의 자연> 음향효과와 함께 견학이 진행된다고 박물관 측은 전했다. 문의전화 72-75-55다.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риглашают в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на день инклюзии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2 декабря станет участник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Музей для всех! День инклюзии". Она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Инклюзивный музей", миссия которого заключается в развитии лучших практик социализации и творче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дет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музейными сред-

ствами, а также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в музеях доступной среды.

Цель акции —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к равноправному участию всех людей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В этот день в музе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инклюз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детей с нарушениями мент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их семей и все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участников.

В 12:00 и 16:00 состоится экскурсия "О том, как ж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в давние времена".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примерить нивхские халаты.

А в 14:00 и 18:00 пройдет экскурсия со звуковыми эффектами "Природа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сообщает музей.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72-75-55.

홍스크 시민 포레인 다자녀 가족이 <올해의 가족>전국 콩쿠르에서 우승에 올랐다

11월 23일 모스크바에서 <2017 가족>전국 콩쿠르의 주최 측은 우승자들을 맞이했다. 우승자 중에 홍스크 시민인 포레인 가족이 있었다. 이 가족은 지역단 계에서도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조직위원회의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 85개 지역 단계의 5부분(<다자녀 가족>, <젊은 가족>, <농촌 가족>, <러시아 명문 가족>, <전통 계승자 가족>)에서 우승한 322 가족에 대한 추천서를 조직위원회가 접수했다고 한다.

문서를 검토한 후 전국에 우승 가족 명단이 확정되어 명단에 오른 85가족 중에 18 가족이 <다자녀가족>부분에서 수상했는데 그중 홍스크의 포레인 가족이 포함되었다.

사할린주정부 홍보실에 따르면 홍스크에 거주하는 포레인 다자녀 가족에는 5명(1남4녀, 10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

포레인 가족은 스포츠를 즐기며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모든 자녀들은 학업에서도 최우수의 성적을 놓치지 않고 있다. 포레인의 아내는 사할린주 <올해의 여성> 콩쿠르의 우승자이고, 막내 딸은 <2017 가장 어린 작가>콩쿠르의 우승자로 자신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전국 <올해의 가족> 우승자들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찬을 베풀었다. 푸틴 대통령은 홍스크 가족의 가장인 왜체슬라브 포레인이 쓴 시를 듣고 계속 시를 쓰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전국 콩쿠르의 우승자들은 러시아의 스타 연예인들의 공연에 초대를 받았고, 모스크바를 관광하며 아이들은 여러 놀이공원을 즐긴 후 포레인 가족은 11월 30일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Многодетные холмчане Потехины вошли в число победителей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емья года"

23 ноября организаторы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емья года-2017" принимали в Москве его победителей. В числе счастливых, отправившихся в столицу, оказались холмчане Потехины. Их семья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По информации оргкомитета конкурса, из 85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сюда поступило 322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а семьи, победившие по итогам региональных этапов по пяти номинациям: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Молодая семья", "Сельская семья", "Золотая семья России", "Семья — хранитель традиций".

После рассмотрения присланных в адрес оргкомитета документов был утвержден перечень семей-победителей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В него включены 85 семей, из них 18 проходят по номинации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Именно здесь заявлены холмчане. (8면에 계속)

제13회 아리랑상, 러시아 홈스크시 시장이 받아

(사)한겨레아리랑연합회, 활동상에는 서예가 고시수 씨

배달민족 한겨레라면 모두가 아리랑을 알고 즐겨 부른다. 아리랑은 단일한 하나의 곡이 아닌 한반도 전역과 세계의 지역별로 다양한 곡조로 전승되었다. 아리랑은 세계 어디에 살든 한국인과 대한민국, 또 한겨레 사이를 이어주는 문화의 뗏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감정적인 연결 끈은 20세기 초 조국을 떠나 일본·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서 눈물로 살아온 동포들은 물론 최근 이민을 통해 옮겨 살게 된 독일·미국·브라질·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동포들 사이에서도 한 겨레임을 확인시켜 준다.



▲ 제13회 아리랑상을 받는 수호메소브 홈스크 시장

11월 25일 저녁 6시 서울 태화빌딩 대강당에서는 (사)한겨레아리랑연합회(이사장 차길진)의 제13회 아리랑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이인제 고문 등 정치인들과 아리랑을 사랑하는 200여 명의 참석자가 몰렸다.

시상식에서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차길진 이사장은 이현수 이사가 대신 읽은 대회사에서 "아리랑은 공동체 결속에 이바지한다. 아리랑은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아리랑은 한국현대사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불려왔다. 아리랑은 인간의 창의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미덕의 노래이다."라며 아리랑의 특징을 강조했다.

이후 이인제, 김석기 국회의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과 스님 등이 축사를 했으며, 이동희 아리랑상 심사위원장의 제13회 수상자 심사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단상에 오른 수호메소브 안드레이 모데스토위츠 러시아 홈스크 시장이 제13회 아리랑상 본상을 받았다. 수호메소브 시장은 수상 소감에서 "사할린 한국인들과 현지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긍지를 느낀다. 내년 한국인 사할린 이주 80주년에는 북한과 함께 <사할린아리랑제>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아리랑상 활동상에는 서예가 고시수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아리랑상은 1994년 제1회 시상식이 이루어진 이래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제1회는 《아리랑의 탄생》을 쓴 미야스카 도시오 작가가 본상을, 김길자 정선아리랑 전승자가 활동상을 받았다.

(신한국문화신문)

새고려신문사 편집부로부터: 사할린에 돌아온 안드레이 수호메소브 시장은 홈스크한인회 박영순 회장과 만나 한인회 발전기금으로 아리랑상 상금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KYDO와 함께 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청소년 음악학교 개교 70주년 기념공연

"여름엔 한국, 겨울엔 사할린에서 같이 연주해서 좋았어요."

11월 24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중앙청소년음악학교 개교 70주년 기념공연이 학교 오케스트라와 한국에서 온 농어촌청소년 오케스트라(KYDO)의 합동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이루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음악학교 초청으로 온 KYDO 14명과 음악학교 30여명의 오케스트라는 21일부터 3일 동안 음악학교 합동 캠프를 통해 음악교류를 갖고 서로의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한국에서 열린 합동 캠프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다시 함께 한 자리는 서로의 낯설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청소년들에게 다른 언어와 문화는 서로가 소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공연 날 음악학교 안 알렉세이의 지휘로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아리랑, 비제의 미뉴에트, SWAY, 라데츠키 행진곡을 양국 청소년들이 함께 연주하면서 많은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이 자리에서 KYDO는 학교 생일 선물로 바이올린 8대, 비올라 1대, 콘트라베이스 1대를 기증하였다. 함께 온 하순석 팀장은 이런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중앙청소년음악학교 마리나 다롭스카야 교장은 사할린까지 온 농어촌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공연 후 단원들은 "여름엔 한국에서, 겨울엔 사할린에서 같이 연주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KYDO를 운영하는 <희망>농어촌재단의 하순석 팀장은 공연 전 사할린주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미팅을 통해 2018년 양쪽이 음악교류를 대폭 확대하자는 사할린주의 제의를 한국 KYDO 측에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글과 사진 정성훈)

80주년 연해주 한인 강제추방 및 79주년 사할린 강제징용을 위한 "국가총동원법"에 즈음하여

(2016년 김포 재외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보고한 자료)

재러시아 한인 현황과 한-러 경제협력에 활용

전 소련-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명예교수 전학문 박사 (전호의 계속)

중앙아시아로 추방당한 한인동포들은 주로 함경남북도 출신이지만 소련의 동쪽에 있는 사할린 섬으로 1938년 일제 강점기 "국가총동원법"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한인들은 주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출신이 바로 재러시아 한인의 제2그룹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무기생산에 필수적인 제철공장에 고열량 석탄을 공급하기 위해 밭에서 일하는 젊은 농부를 갑자기 붙잡아서 트럭에 싣고 행선지도 말하지 않은 채 바로 끌고 가는 비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행으로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할린 탄광으로 4만3천명이나 강제동원하여 마초처럼 혹사시켰다. 세계대전 이 끝난 후 일본정부는 1947년까지 사할린에 일본 주민들을 귀환시켰지만 수난과 고난을 겪은 한인 징용자들은 2세와 3세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사할린에 억류되어 버려진 백성인 무고지민이 되고 말았다.

중전 이후 소련 정권은 사할린 동포 2세를 위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사할린의 도시에 일본학교를 조선초등학교와 7년제 학교로 개편하여 1947년에는 3000여 명의 한인 학생들이 수업을 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1953년에는 조선사

범학교를 설립하였다. 모든 과목은 한국어로 수업하였고 노어는 보조적 언어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노어 지식이 약한 탓으로 조선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에 아주 곤란하였다.

1956년부터 시작한 스탈린의 전제군주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북한의 김일성 개인숭배의 폭로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고, 한국에 대해서는 오직 살벌한 독재자의 나라인 줄만 알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경찰과 충돌한 사건 외에는 아무 보도도 없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북한이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더구나 그 당시 전파된 <러시아화 정책>으로 1960년부터 1963년까지 조선학교와 조선사범학교도 완전히 폐교되고 말았다. 그 후부터 한인의 새 세대는 러시아어로 수업하였고 점차적으로 한국어를 잊기 시작했다. 1989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 한인 인구의 약 60%되는 청소년들은 모국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시아에서는 1940년경에 조선학교가 모두 없어졌으며 러시아어가 새 세대의 모국어가 되어 한국어는 점차 잊혀지기 시작하였다.

1959년에 기록된 재소 한인의 인구수는 31만 3000명이 1989년대에는 44만 명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인구수 성장속도가 차츰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은 출생률이 낮아지고 혼혈결혼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소련 정권의 존재 말까지 혼혈결혼의 비율은 40%까지 달했다.

소련에서 1985년부터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부르는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한인들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에 대하여 채택된 정치적 억압, 러시아 연방영토에 정착한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금지, 강제노동설정, 자유와 권리 제한을 모두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재소 한인에게 명예회복을 선언한다는 지령이 1993년 4

월에 정식적으로 발령되었다. 그 후 중앙아시아에 억류되어 있었던 한인들은 적극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어 대신에 러시아어의 지식을 습득한 청년들은 집단적으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등 다른 큰 도시의 대학으로 어려운 시험 경쟁을 극복하여 합격에 성공한 사례가 빈번했다. 그후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변호사, 연예인, 영화감독 등 지능형 세대와 더불어 명성을 얻어 출세한 인물들도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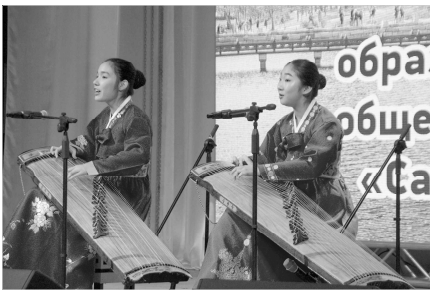
소련시대에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인들은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1980년-1990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대대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후 현재 모스크바의 한국 인구수는 2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중앙아시아 출신인 2세와 3세 한인들이 3만 명 이상 조상의 고향인 한반도와 가까운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연해주 정부는 이민자의 거주지와 취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예산과 외국 투자 글로벌 자금으로 한인 마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제공하였다. 실지로 연해주의 여섯 지역에 군부대를 철수하여 비운 육군병영과 주변의 토지를 첨가하여 한인 마을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주택, 유치원, 학교, 문화센터 등의 건축을 시작하였고 농업센터 설립을 구축하였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이후에 소련 공산당 중앙기관지인 "프라브다(진실)"신문에는 "위대한 민족-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발표되었다. 이 신문에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사막을 삼파랭이로 논밭을 만든 민족, 사할린에서도 역시 삼파랭이로 탄광을 개발한 민족, 또 고등교육수준은 150여 중 민족 중 한인동포가 유대인과 같이 1-2위를 차지하여 전 소련의 평균 점유율 보다 2배 이상 높고, 최고국가훈장인 <영웅 칭호> 수상자도 1위라는 평가가 발표되었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честь 25-летия РООСК – молодежный фестиваль песни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25 ноября в ДК «Родин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10-й молодежный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который был приурочен 25-летию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тала Уримал бансон КТВ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СК,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авиакомпании Азиан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ен Чер,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Хван Мен Х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аркис Акопян, которые пожелали процветания молодежному конкурсу. Были также зачитаны приветствия от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я Хапочкина и мэ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я Надсадина.

Гости поздравили РООСК с 25-летием, отметив, что организац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амую многочисленн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общину и проводит большую работу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В сфере забот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 провед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орумов, совещаний, страноведческих олимпиад, конкурсов и грантовых проектов. Репатриация и разовые поездки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международный гуманитарный проект по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ю останков жертв японской милитаризации, диагностика и лечение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 Корею, обеспечение их лекарствами из Японии.

Конкурсная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песнями самого разнообразного формата: традиционная народная песня, хиты 80-х годов, поп музыка и т.д.

Жюри, представленное педагогами ДШИ «Этнос», оценило выступления 18 конкурсантов в дву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от 7 до 17 лет, от 18 до 35 лет.

Гран-при в 1-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предоставила РООСК. Его завоевал дуэт Ри Ун Сун и Ли Екатерина, исполнившие народную песню «Миллян Ариран».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ручила победителям билет Южно-Сахалинск-Сеул-Южно-Сахалинск.

Точно такой же гран-при завоевал Михаил У с песней «Мучжокон»(Безусловно). Награду победителю вручил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авиакомпании Азиана Хон Ден Хван.

Нельзя не отметить огромную ро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Уримал бансон КТВ Ким Чун Дя. Именно она является бесменным инициатором и руководителем всех песенных фестивалей, первый из которых стартовал в 1996 году. Ким Чун Дя выразила надежду, что молодежный песенный конкурс будет шириться и набирать все большую сил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писателя Ян Сергея

Творческий вечер сахали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и поэта Сергея Яна состоялся 23 ноября 2017 г. в гостиничном комплексе Гагарин.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стречи стал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женщины. На встречу с писателем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не только члены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но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и другие гости.



Сергей Ян широко известен как на Сахалине, так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Он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и лауреатом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втор таких книг, как "Страна отцовских грез", "Сон одинокого облака", "Тени цветов", "Слушая песни дождя".

Основная тема прозы —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рассказы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Философские размышления о судьбах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На вечере Сергей Ян рассказал гостям об истоках своего творческого пути. С большим интересом были восприняты стихи, написанные в разные периоды его жизни, которые автор читал сам.

(Фото и материал предоставлены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женщины)

Юные музыкант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оздравили ЦДМШ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 70-летием

1 октября 1947 г. в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ослевоенное время была создана первая музыкальная школа. В этом году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е исполнилось 70 лет со дня его основания. Этой дат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множество мероприятий. Одно из них - концерт оркестрового отделения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24 ноября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Этот концерт отличался от обычного тем, что по официальному приглаш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БУ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Центральная Детская музыкальная школа»,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музыканты молодеж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KYDO»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юных корей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предоставил их учредитель –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Фонд «Надежда» Ассоциации верховой езд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ав молодеж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KYDO» насчитывает свыше 200 детей. Н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тить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а только лучшим из них, после тщательного отбора. Совместно отметить юбилейную да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приехали 14 лучших артистов с корейских городов Сочон и Пхадю : Кан Су А и Ким Ен Ын (флейта), Кан Мин Дю (гобой), Че Мин Сон, И Ын Хи (кларнет), И Су Мин (труба), Кан Ген Мо (тромбон), Тянь Гон У, Тянь Дюн Ён, Ким Хе Дин , Кан Хви Дён (скрипки), Вон Чан Ми, Бэ Хо Чан, Ким Ин Э (виолончель).

В назначенное время зрительный зал заполнили гости, педагоги, друзья и просто любители музыки. В первом отделении юные музыканты сахалинской школы показывали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игры на раз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в исполнении соло, трио, ансамблем. Во втором отделении детски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Сахалинские надежды»,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насчитывал 35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ны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KYDO»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вместно исполни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Д.Шостаковича «Вальс» из джаз-сюиты № 2,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ую песню «Ариран», юмористическ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Л. Андерсона «Синкопированные часы», «Марш Радецкого» И.Штрауса и др. Своеобразной «изюминкой» концерта стало произведение француз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Жоржа Бизе «Менуэт», где партию соло флейты

с объединенным оркестром исполнила юная корейская артистка Кан Су А. Дирижировал совместным детским оркестром преподаватель ЦДМШ Ан Алексе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которого и состоялся это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роект.

С большим праздником детей оркестров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здравил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льн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Марина Германовна Даровская,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и дириже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Тигран Суренович Ахназарян, а также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Фонда «Надежда» господин Ха Сун Сок. И, конечно же, корейски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Фонд «Надежда» приехал не с пустыми руками: для развития музыкаль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ей, в честь юбилея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подарил очень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школы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 8 скрипок и 1 контрабас.

За несколько проведенных вместе дней ребята очень быстро сдружились,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не стал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общения и понимания друг друга. В этом им помогли совместные репетиции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и, конечно, общая любовь к музыке.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юные музыканты из оркестра КИД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постоянно посещают Сахалин с концертами,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тить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 каждым разом эт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вязи крепнут и расширяются. И сейчас сахалинская и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ы ведут переговоры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обмену,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уже летом 2018 г.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смогут побывать в гостях друг у друга, успешн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надеяться на нов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стречи юных артистов.

РИ ОК ПУН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К и КНР могут возобновить переговоры по условиям

РК и КНР могут возобновить второ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условиям действующего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По данным источника в Пекине, стороны сообщают об этом в ходе саммита двух стран, намеченного на декабрь.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о показатель улучш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До настоящего момента процесс двустороннего обсуждения условий соглашения никак не продвигался из-за нежелания КНР сотрудничать. Переговоры сторон затронут сферу услуг и инвестиций, в том числ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ультурные контенты Халлю, логистику, продажи, а также финансовые, юридические и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запрет Пекина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Китае контентов Халлю, на местном рынке все ещё сохраняется высокий спрос на них. Кроме того, РК довольно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ая в сфере медицины. Поэтому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возлагаются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хода на профильный рынок Китая. Между тем, перед саммит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двигает активизацию обмена между деловыми кругами двух стран.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ись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ИД

27 ноября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Игорь Моргулов, накануне прибывший с визитом в Сеул, совместно со свои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оллегой Юн Сун Гу, провёл 17-е по счету южно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состояние и направлени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по плану расширения ре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б этом 28 ноября сообщили в МИД РК.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Игорь Моргулов и Юн Сун Гу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быстрый рост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партнё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рамках которых обмен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и кадров достиг рекордной отметки, а в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сентябрь товарооборот вырос примерно на 50%. Юн Сун Гу отметил, что контакты сторон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создали фундамент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РК и России. Он также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проведен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встреч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рамках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в феврале и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2018 в России в июне.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стороны подписали план обменов между МИД двух стран на 2018 – 2019 годы.

Суд рассматривает дело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без её присутствия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бывший президент РК Пак Кын Хе два дня подряд отказывалась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судебном заседании по её делу, суд решил продолжить слушание без её присутствия.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судом Центральн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Сеула по итогам судебного заседания, состоявшегося 28 ноября. Суд отметил, что подсудимая снова не явилась на слушани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её уведомили о праве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воей защиты посредством участия в судебном разбирательстве. Между тем, слушание должно продолжаться, так как предстоит допросить много свидетелей. В этот день состоялся допрос Ким Гвон Хуна, помощника бывшего старшего секретаря президента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Ан Чжон Бома в качестве свидетеля.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К посетил место побега солдата КНДР в РК

Место инцидента с побего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олдата в РК через Объединённую зону безопасности (JSA) впервые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южнокорейским и иностранным СМИ. 27 ноябр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МИ вместе с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РК Сон Ён Му посетили данное место. Министр ознакомился с докладом о результатах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бстоятельств произошедшего. Он лично осмотрел маршрут бегства солдата через границу, поднявшись на второй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пункт перед разграничительной линией. Он высоко оценил взвешенные действия военных РК и США в той экстренной ситуации. Министр призвал местны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охранять готовность к всевозможным неожиданностям и соблюдать соглашение о перемирии. Сон Ён Му заявил, что не только стрельба, но и ношение автомат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солдатами в Объединённой зоне безопасности является нарушением соглашения.

Официальные болельщики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боте

Официальные болельщики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хёнчхане, так называемые «White Friends»,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боте. Их численность составляет 1.882 человека. Группы болельщиков до конца ноября совершают экскурсионный тур по олимпийским объектам в городе Пхёнчхане и Каннине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После их окончания болельщики намерены обсудить конкретный план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White Friends»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успешном проведении Олимпиады, создавая праздничную атмосферу мероприятия путём активной поддержки всех спортив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и спортсменов. (RKI)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2017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45)

Дискуссионный доклад К.В. Хазизова (ИСАА МГУ) подчеркнул значимость проведенного Ким Хёнсу исследования указав, что в связи с недостатком корейских письме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и тенденциозностью ряда китайских хроник, многие аспекты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Кореи до сих пор остаются неисследованными. Однако, такие достиж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как интерпретация текста, обнаруженной в 2013 году новой когурёской (Цзианьской) стелы, дают новые сведения о данном периоде истории Кореи.

Российски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ИВ РАН Пак Бэлла Борисовна продолжила дело своего отца, учёного Пака Бориса Дмитриевича – углубленное изуч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биограф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едущих дипломат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луживших в Корею. В докладе Б.Б. Пак был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ы тактика перв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ланника в Корею К.И. Вебера в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ван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 1896-1897 гг., его вклад в подписание Сеульского меморандума и Московского протокола в 1896 г., переговоры в России с корейской специальной миссией во главе с Мин Ёнханом и их влияние на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докладе также рассказано о предпринятых в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вана Коджона в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И. Вебера шагах по наведению порядка в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е и п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армии Кореи. Особую ценность работе придает уникальная источниковая база,

включая как ранее не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ею документы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зарубежных архивов, так и впервые обнаруженные сведения о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К.И. Вебера, любезно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е потомками выдающегося дипломата.

В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той Б.Д. Паком систематизации сведений, полученных в ходе экспедиций фрегата «Паллада» в Корею в 1854 г., корейский ученый Ким Ёнсу (Фонд истории СВА) представил интересный доклад на тему обнаружения участниками экспедиции островов Уллындо и Докдо,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материалах очерка путешествия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И.А. Гончарова, входившего в состав экипажа «Паллады», и отчета адмирала Е.В. Путятинна о плавании фрегата «Паллада».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Кореи и Монголии ИВ РАН Воронцов А.В.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уделил вним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му состоянию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России. По его подсчетам, число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нимающихся исследованием Кореи в различных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центрах от Москвы до Владивостока в нашей стране составило 178 человек, что, по его мнению, можно оценивать как положительную динамику в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России. По словам Воронцова А.В., сложились старинные корееведческие центры в Москв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ладивостоке, однако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на них не замыкается, география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расширяется за счет открытия новых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школ в различных городах нашей страны.

Новые, мало изученные темы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своих выступлениях заявили Чхве Доккю (Фонд истории СВА) «Мировая телеграфная сеть 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1884-1904 гг.», Ким Вонсу (Сеуль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литика Корейской империи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в контекст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1903-1904 гг.)». С не менее содержательными комментариями по указанным темам выступили росси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В.В. Глушков (МФТИ), Ким Енун (ИДВ РАН), А.В. Гринюк (ИДВ РАН).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на его подготовку ушел целый год!), безусловно, имеет огромное практ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 масштабах все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не всяких сомнений послужит делу укрепления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а именно – расширению контактов в научной сфер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той связи хочется поблагодарить Фонд истори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РК), Посольство РК в Москве, Московский До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куратора симпозиума Пак Бэллу Борисовну за безупреч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а также выразить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бы научные встречи такого плана проводились в дальнейшем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Российскому корееведению – пожелать новых достижений и перспектив!

А. Шарафетдинова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отдела Кореи и Монголии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РК привлекает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октября накопл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сетивших РК, сократилось на 23,9%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11 млн 110 тыс. человек. Снижение показателя объясняется влиянием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анкций со стороны Китая в ответ на размещение в РК комплексов ПРО THAAD, а также напряжённость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ызванной ракетными и ядерными испытаниями Севера. Если нынешняя тенденция продолжится, то к концу года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т 13,2 млн туристов. Это на 23,4%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ц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уризма Кореи поставила цель преодолеть отметку 2015 года в 13 млн 230 тыс. человек. В этой связи принимаются активные меры по привлечению туристов в страну.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я с участием глав 32 отделений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был проверен план активного привле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частности, особый упор делается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едстоящей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в Пхёнчхане. В Китае и Японии проводятся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акции с целью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 поездке в РК. В странах Европы и Америки через известные СМИ проводится ознакомление с предстоящей Олимпиадой. Аналогичные меры принимаются и в странах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достоверные эксклюзивные новост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Москвы признали опыт работы МФ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в стране

Используемые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едовые практики в сфере оказ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представляю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для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Таков главный итог рабочего визита в область делегации из столицы. В ее состав вошли специалисты, курирующие профиль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системы МФЦ Москвы.

Гости посетили отделения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Корсакове. Они ознакомились на практике с работой сотрудников учреждений, оценили комфортность и доступ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гражданам услуг. Их количество в регионе постоянно растет и сегодня составляет 312 видов. Только за последние 3 месяца услугами МФЦ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около 56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маркетинга и связи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московского МФЦ Евгения Шипунова так оценила результаты поездки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ахалинский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роизвел на нас глубочайшее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в его работе четкое следование брендбуку и реализацию рекомендаций по фирменному стилю, удобство локаций. Те центры, которые мы посетил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оступны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Яркий пример тому - имеющиеся у них в наличии инвалидные коляски. Конечно же впечатлили прочны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с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четко выстроенная система работы, оказание услуг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и 100-процентная универсализац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Уверена, опыт Сахалина может быть полезен для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Уже в начале новой недели МФ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етят коллеги из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А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напомним,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лучил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за эффективно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по принципу «одного окна». Она была обозначена по итог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РФ при Президенте Владимире Путине.

Сахалинский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вышел в лидеры сразу по нескольким показателям: качественная работа персонала, минимум ожидания в очереди, удобный график приема клиентов, большой перечень услуг. Власти Сахалина отметили, что МФЦ в регион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олжать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вою работу. В частности, требуется улучшать качество услуг в систе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образования, опираясь при этом на мнение жителей.

«Трудные» подростки на Сахалине будут чаще привлекаться к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 этом шла речь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делам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и защите их прав. Мероприятие в режиме селекторного совещания прове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Антон Зайцев.



В совещ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йонных комиссий по делам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контролирующих органов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был рассмотрен вопрос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в том числе находящихся в социально опасном положении, к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й и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к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области Егор Умнов, с нач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молодежных форумов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ются волонтеры. Для подростков такой опыт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способом получения новых знаний, развития навыков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нравственных ценностей, актив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позиции.

-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одной только форумной кампании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пять областных добровольческих школ. В них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более 500 подростков. Помимо форумной кампании и различных акций, волонтеры принимают также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спортивных, культурных,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и други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волонтеров, принявших участие в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й за пределам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Егор Умнов.

В 2018 году работ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развития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по та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как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социаль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е и экологическое волонтерство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значение волонтерского труда для так называемых трудных подростков. Ведь одной из важнейших проблем такой молодежи, как известно, является дефицит социальной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и. Участие в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ает подросткам возможность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восполнить этот дефицит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значимость. Дети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нужными, так как сами являютс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Это создает ситуацию успеха, укрепляет веру в хорошее будущее для каждого конкретного подростка. В связи с чем, нужно как можно чаще привлекать к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й и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дростк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 группе риска, - подчеркнул, подводя итог обсуждени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Антон Зайце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미동포 임영광CBS PD, 미국 주요도시에 평창올림픽 홍보

강원, 서울, LA 오가며 강원도, 평창올림픽 홍보영상 'This is Gangwon' 제작 CBS 아침 간판 뉴스 쇼 <CBS This Morning> 여행정보코너에 한 달 동안 6차례 방영

재미동포 방송인이 미국 지상파 방송을 통해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섰다.

재미동포 방송인 임영광 CBS PD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을 통해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영상인 'This is Gangwon'이 지난 20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아침 간판 뉴스 쇼인 <CBS This Morning>의 여행 정보 섹션에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PD에 따르면, 강원도의 제작 지원 등을 통해 미국 CBS 방송은 동계올림픽이 개최 되는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 배우 다니엘 헨리가 출연과 나레이션을 맡은 프로그램을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서울, 강원도, LA에서 촬영,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만한 강원도의 6개 관광 명소를 미국 전역의 시청자들에게 소개한다.

<This is Gangwon>은 2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동안 뉴욕,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도시에 방영되는 아침 간판 뉴스 쇼인 <CBS This Morning> 의 여행 정보 섹션에 여섯 차례 소개될 예정이며, CBS로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20일 방영된 1편 알펜시아리조트 편은 스키점프를 포함한 다양한 동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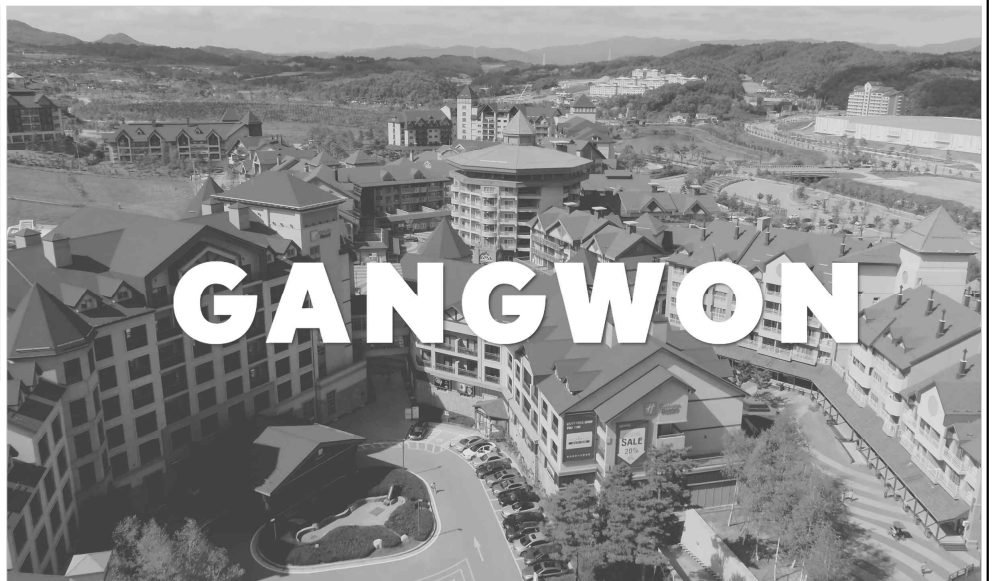
DANIEL HENNEY ACTOR

올림픽 경기들이 펼쳐질 알펜시아의 스포츠시설과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부대시설 등이 소개됐다...

이어 방영될 2편은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다룬다. 권금성, 신흥사, 금강굴, 공룡능선, 토왕성 폭포 등 외설악의 아름다운 절경을 드론 촬영을 통해 영상으로 담았다. 특히, 안개가 가득한 날에 촬영돼, 운무에 쌓인 설악산의 신비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3편은 정선 5일장을 주제로 제작됐다. 추석 연휴기간에 촬영된 3편에서는 명절 준비를 위해 5일장에 나온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담았으며 강원도의 농수산물과 음식, 문화를 소개한다.

4편에서는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한다.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양'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1972년 한국에 처음 수입된 '면양'은 한국인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낯설고 신기한 존재인 점을 부각한다. 가족, 친구, 커플 단위



로 양떼목장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한국식 레저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5편에서는 한국인들에게조차 낯선 노추산 모정탑(母情塔)을 소개한다. 최근 대중에게 공개된 이곳의 약 3천 개의 돌탑에 얽혀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헌신 등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강원 편이 방영된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식도락가라면 한번쯤 꼭 방문해야 할 곳이라고 소개하며, 한식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옥과 장독대 등의 모습도 보여준다.

임 PD는 "CBS가 올림픽 중계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접하기 힘든 프로젝트였으나 개인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싶었고, CBS와 강원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에 일을 제작 방영 할 수 있었다"며, "한인 프 로듀서로서 앞으로 더 많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사람들을 미국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재미동포 이자 재외동포 출신인 임 PD는 재외 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멘토 출신이며 현재 뉴욕의 한인 차세대 단체인 'MOI' M (모임)의 공동대표로도 활동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잊혀진 고려인 - 중앙아시아 한국인(고려인)에 대한 역사와 예술 탐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전선하(박사과정생, 지도교수: 정연심)학생이 2017년 7월 24일 한국연구재단 주관 2017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 Program)에 최종 선정되었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국내 대학원생들이 학문·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인재 양성사업"이다. 본 펠로우십은 총 200명의 연구자가 선정되었고, 평가대상이 1,518명(선정률 13.2%)에 이르는 명예로운 장학 프로그램이다. 이는 국내 대학원 소속의 박사학생들이 본 펠로우십 기금을 통해 리서치에 전념할 수 있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선정으로 학술활동비, 등록금 지원을 2년 동안 받게 되며, 연구 성과에 따라 박사과정의 경우 추가 1년을 지원받는다.

전선하 학생은 올해 초 이번 사업에 <동아시아 담론: 고려인 화가 발견과 고려인의 정체성 회복>을 연구과제로 제출, 영어로 진행되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연구 과제를 통해 동아시아 미술에서 소외되어왔던 고려인 화가에 대한 발견과 재평가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선하 학생은 고려인 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고려인 4세인 김 게르만 교수를 찾아가 현재 고려인 화가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에 있다.

김 게르만 교수는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이자 동대학교 한국학연구센터 소장이다. 그는 카자흐국립대학교 역사학박사(세계사, 한인해외이주사 전공)이며, 현재 건국대학교 사학과의 초빙교수를 지내고 있다. 평소 중앙아시아 동포사회와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자처해오던 그는 예술 애호가로서 고려인 화가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이번 '고려인 화가 연구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전선하 학생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려인' 예술 중 미술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최초의 시도로서 카자흐스탄과 우주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히 되기를 염원한다고 인터뷰하였다. 2017년에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 본격적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다양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디아스포라 연구의 정점에 있는 고려인 화가 발굴 및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인 고려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화가의 미술작품은 글로서 보다는 시각문화로서 다양한 재외한국인들



과 접촉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수 세대를 거듭하여 타문화와의 문화접점으로 새롭게 창조된 고려인의 삶의 특이성을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힘의 논리가 세계의 질서이고 역사의 흐름임을 국제질서와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과거 우리는 국민은 있어도 나라가 없고 나라는 있어도 국민이 없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힘이 있는 국가는 국민이 있는 곳에 나라를 주장하고 나라안의 모든 사람이 국민이라 여긴다.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 역사로부터 소외받은 중앙아시아의 한국인들에게 한국인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그들을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예술계와 역사 역시 풍성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제공)

[우리말로 깨달다] 악을 쓰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리에게는 살면서 헤쳐 나가야 할 무수한 일이 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움에 우리는 수없이 주저앉게 되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말에서는 무엇을 쓴다는 표현을 쓴다. 무엇을 쓰면서 살아가야 할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힘을 쓰는 게 아닐까 한다. 어떤 이는 노동이 피로운 것이라 하지만, 나는 그 말에 꼭 동의하지 않는다. 내 힘을 써서 다른 이가 즐거워지는 일은 기쁜 일이다. 내 힘으로 다른 이를 돕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 특히 가족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차라리 축복이다. 힘써 일하고, 힘껏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꿈을 꾸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게 힘이 든다고 이야기한다. 언어적으로만 보자면 힘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다. 힘을 써야 하니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힘을 쓰고, 힘이 들어가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일은 기쁨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악을 쓴다>는 말도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악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악다구니나 아가리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아가리는 '악+아리'의 구조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악은 이를 악물고 한다는 의미의 악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위턱과 아래턱을 총칭하는 '악(顎)'에서 온 말로 보인다. <악물다>라는 말은 위턱과 아래턱을 꼭 다물었다는 뜻이 된다.

악이 들어가는 다른 단어로는 <악다구니를 놀리다>도 있다. 이 말은 기를 쓰고 욕설을 한다는 뜻이다. 또한 <악머구리 꿇듯>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말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끄럽게 마구 떠드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악쓰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악머구리를 꿇듯>과 일면 비슷하다. 악을 쓰는 것은 악을 내어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을 쓰다는 말의 기원은 발악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발악(發惡)의 악은 나쁘다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쓴다는 의미이다. 악을 내 뺀치는 느낌이다. 바로 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악에 반친다는 말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악이 밀고 들어온다는 느낌이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악을 쓰고 달려들고, 악을 쓰고 얼굴에 핏발을 세운다. 착함은 사라지고, 내 속의 잔인함까지 드러나게 된다. 그야말로 선이 아니라 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얼굴이 벌게 진 모습에서 선함은 찾을 수 없다. 악을 최후의 수단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악은 최후까지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서 악의 힘이라도 빌리고 싶을지 모른다. 악이라도 써서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유혹이다. 잠깐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역설적이지만 악을 쓰다는 표현이 답을 말해준다. 그것은 악이다. 나쁜 것이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장면에서 다른 것을 써야 하지 않을까? 기(氣)를 쓰고 우리는 악의 마음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하지 않을까? 힘이 들더라도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착한 일에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재외동포재단 제공)

대한적십자사 천안지구협의회, 사할린 동포 효(孝)잔치 개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천안지구협의회(회장 이흥구)는 지난 29일 천안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사할린동포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孝) 잔치를 개최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창기 회장을 비롯해 구본영 천안시장, 천안지체장애인협회 유제국 회장, 경륜경정사업본부 천안지점 변현섭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축하 및 인사말, 이불세트 선물 전달식, 중식, 위문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은 일제 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되었던 동포들로,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1989년 한·일 정부의 요청으로 양국 적십자사 간 협정을 체결하고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사할린동포복지회관운영, 영주귀국사업, 모국방문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



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노인은 "희망풍차 결연을 맺은 적십자 봉사원이 매년 찾아오는 것만도 고마운데, 오늘 정성껏 준비된 음식과 공연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며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적십자사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대전투데이)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е из Холмска воспитывается 5 детей (от 17 до 10 лет, 4 девочки и мальчик).

Потехины ведут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занимаются спортом, все дети — отличники в учебе. Мама — побе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нкурса "Женщина года" Младшая дочь Потехиных —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Самая юн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2017 года" уже выпустила свои книги.

В Москве победител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емья года»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на завтрак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Услышав стихи Вячеслава Потехина, президент посоветовал и дальше продолжать писать стихи.

Победил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также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на 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российских звезд эстрады. Кроме того, для них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экскурсии по Москве, детей ждали в игровых парках. Домой Потехины вернулись в четверг 30 ноября..

12월 16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펠메니(만두)의 날> 개최

올해도 <펠메니(만두)의 날>축제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연례 행사로 12월 16일에 펼쳐진다. 이에 대해 시 식자재 및 소비시장관리국 엘레나 미하일롭스카야 국장 대행이 알렸다. 시 행정부에 따르면 작년 첫 '펠메니(만두)의 날'을 시작했을 때는 천

명 이상이 참여했었다. 그때 이 축제를 연례 행사로서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소비시장 발전에 따른 지방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날 만두 만들기 대회와 시식도 진행되며 우수 생산자 콩쿠르와 만두 먹기 대회도 펼쳐진다.

"12월 16일에 율카트리 점화식과 축제가 진행될 레닌광장으로 모두를 초대한다. 축제의 시작은 낮 12시고, 펠메니 시식은 오후 3시부터다."라고 미하일롭스카야 국장 대행은 전했다.

"День пельменя" прове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6 декабря

Фестиваль "День пельменя" должен стать ежегодны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17 году он пройдет 16 декабря.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начальника городск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Елена Михайловская.

Впервые пельменные гулянья состоялис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по данным мэрии, привлекли более тысячи горожан. Тогда же 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делать этот праздник традицией. Проводиться он будет в рамках муницип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развитию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рынка.

В этот день предусмотрена работа полевой кухни с бесплатной раздачей пельменей, а также проведение конкурсов на лучше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и конкурс на поедание

- Всех приглашаем 16 декабря на площадь Ленина на открытие городской ёлки, гд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фестиваль. Начало в 12, раздача с трёх часов, сообщила Михайловская.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검진(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7년 12월 20일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노루의 사향을 팝니다!

г. Иркутск, тел. : 8-924- 544-70-82

e-mail : she.xiang@yandex.ru

ООО «МУСКОН - СОБОЛЬ»

реклама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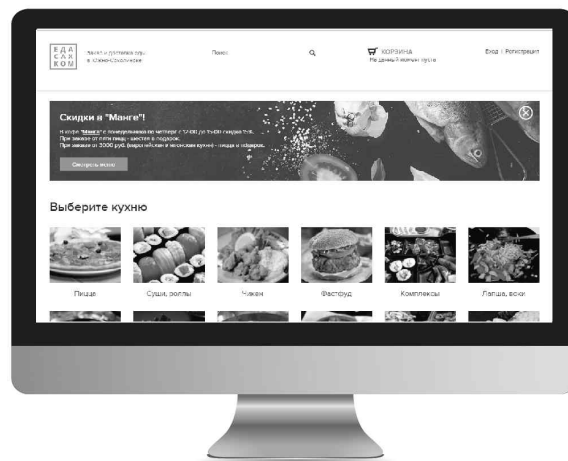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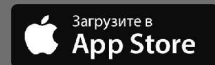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